1번 - 정답: 3번

해설: 편지를 쓴 사람은 불가리아 정부 관계자입니다. (가)는 이교도에 의한 압제의 종식, 발칸 국가 간의 동맹과 그 동맹의 튀르크에 대한 선전의 내용을 통해 제 1차 발칸 전쟁에 대한 내용임을 알 수 있으며, 30일 뒤 오스만에 선전포고한다는 것으로 보아 1912년에 작성된 편지임을 유추할 수 있습니다. 한편 (나)는 또다시 발발한 전쟁, 오스만 제국의 압제자들을 불러들여 기독교도를 공격하는 세르비아와 그리스, 영국의 그리스 동정여론 등을 통해 제 2차 발칸 전쟁에 대한 내용임을 알 수 있으며, 어제 전쟁이 발발했다는 것으로 보아 1913년에 작성된 편지임을 유추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는 가스, 의무대, 참호, 신무기 탱크 등을 통해 1차 세계대전에 대한 내용임을 알 수 있으며, 어제 미국이 참전했다는 것으로 보아 1917년 4월에 작성된 편지임을 유추할 수 있습니다.

모로코 사건은 1905년, 1911년에 발생했습니다. 따라서 선지 ㄱ 은 옳습니다.  
영국은 이집트를 1914년에 보호국화 하였습니다. 따라서 선지 ㄴ 은 틀렸습니다.  
중화민국은 1912년 수립되었습니다. 따라서 선지 ㄷ 은 틀렸습니다.  
밸푸어 선언은 1917년 11월에 발표되었습니다. 따라서 선지 ㄹ 은 옳습니다.

2번 - 정답: 4번

해설: 이 왕조는 이슬람 계열의 국가이고, 메카가 있는 방향과 중국이 있는 방향이 일치한다는 점을 통해 아라비아반도 서쪽에 위치한 국가라는 사실을, 중국의 왕조가 남송이라는 점과 건설된 지 100년 정도 된 국가라는 것을 통해, 남송이 존속했던 12세기-13세기보다 3세기 앞선 9세기-10세기경 건설된 국가라는 사실을 유추해낼 수 있습니다. 구대륙의 메카(아라비아반도)서쪽에는 북아프리카 지역밖에 없는데, 북아프리카 지역에 9-10세기경 세워진 나라 중 북아프리카의 패자로 군림하고 12-13세기경 쇠퇴한 국가는 파티마 왕조뿐이기 때문에 이 왕조는 파티마 왕조라는 사실을 유추할 수 있습니다. 혹은, 왕가가 무함마드의 딸의 후손을 자처하고 있다는 점에서 파티마 왕조임을 알 수 있습니다.

1번 선지는 티무르 제국의 티무르에 대한 설명입니다.  
2번 선지는 오스만 제국 등에 대한 설명입니다. 파티마 왕조는 시아파 이슬람 국가입니다.  
3번 선지는 오스만 제국에 대한 설명입니다.  
4번 선지는 파티마 왕조에 대한 설명입니다. 파티마 왕조는 셀주크 튀르크 및 십자군과 지속적으로 대립했습니다.  
5번 선지는 사파비 왕조에 대한 설명입니다.

3번 - 정답: 2번

이슬람력의 원년은 무함마드가 박해를 피해 메카에서 메디나로 이주한 헤지라가 일어난 해입니다. 헤지라는 그레고리력 622년에 일어난 사건이므로 A=622이며, 그레고리력 연도를 구하는 공식은 B=0.97\*C+622입니다.

이슬람력 500년은 그레고리력으로 (0.97\*500+622)=1107년입니다. 1차 십자군 전쟁은 1096년부터 1099년까지 진행되었습니다. 따라서 선지 ㄱ 은 틀렸습니다.  
이슬람력 700년은 그레고리력으로 (0.97\*700+622)=1301년입니다. 백년전쟁은 1337년부터 1453년까지 진행되었습니다. 따라서 선지 ㄴ 은 틀렸습니다.  
이슬람력 900년은 그레고리력으로 (0.97\*900+622)=1495년입니다. 예수회는 1534년에 설립되었습니다. 따라서 선지 ㄷ 은 틀렸습니다.  
이슬람력 1100년은 그레고리력으로 (0.97\*1100+622)=1689년입니다. 1688년 명예혁명에 이어 1689년 영국에서는 권리 장전이 승인되었습니다. 따라서 선지 ㄹ 은 옳습니다.  
이슬람력 1300년은 그레고리력으로 (0.97\*1300+622)=1883년입니다. 영국의 3차 선거법 개정은 1884년의 일입니다. 따라서 1883년 시점에 이들은 참정권이 없고, 선지 ㅁ은 틀렸습니다.

옳은 선지는 1개입니다.

4번 – 정답: 3번

(가)는 가쓰라-태프트 밀약에 대한 내용입니다. 미서전쟁(1898)의 결과로 필리핀을 할양받은 미국은, 이에 대한 방위를 공고히 하기 위해 가쓰라-태프트 밀약을 맺어 영일동맹과의 상호불침 의사를 분명히 합니다. (나)는 프란시스코 프랑코, 공화파, 스페인 등의 단어를 통해 스페인 내전(1936-1939)에 대한 내용임을 유추할 수 있습니다.

아기날도는 스페인 내전 도중 필리핀 공화국의 수립을 선포한 필리핀의 민족운동가입니다. 그는 스페인에 맞서면 독립을 시켜 주겠다는 미국의 약속을 믿고 미서전쟁 도중 필리핀 공화국을 선포하였으나, 이후 미국은 약속을 어기고 스페인을 보호국화합니다. 따라서 ㄱ 선지는 틀렸습니다.  
마르크스는 1848년 공산당선언을 발표합니다. 따라서 ㄴ 선지는 틀렸습니다.  
독일은 1936년 라인란트를 재무장화합니다. 따라서 ㄷ 선지는 옳습니다.   
러일전쟁은 1904-1905년에 걸쳐 진행되었습니다. 따라서 ㄹ 선지는 옳습니다.

옳은 선지는 2개입니다.

5번 – 정답: 2번

(가)는 프랑스 혁명 시기 검은 나폴레옹이라 불린 투생 루베르튀르에 대한 기사입니다. 흑인 노예들이 세운 공화국인 아이티 공화국은 1804년에 정식으로 독립하였습니다. (나)는 아프리카의 검은 나폴레옹이라 불린 샤카 줄루의 후예, 줄루족이 세운 줄루 왕국과 대영 제국의 줄루 전쟁에 대한 기사입니다. 줄루 전쟁 도중 대영 제국은 이산들와나 전투(1879)에서 패하였으나 결국 줄루 왕국을 패배시키고 남아프리카를 완전히 장악합니다.

나폴레옹 보나파르트는 아이티의 반란 진압에 실패한 뒤, 미국에 루이지애나를 판매하였습니다. 그러나 루이지애나 판매는 1803년에 이뤄졌으므로, ㄱ 선지는 틀렸습니다. 더욱이, 1803년 시점 나폴레옹은 황제가 아닌 프랑스 제 1공화국 통령 정부의 제1통령이었으므로 나폴레옹이 프랑스 황제라는 서술 또한 옳지 않습니다. 나폴레옹의 황제 즉위는 1804년에 이뤄집니다.  
옴두르만 전투는 1898년의 일입니다. 옴두르만 전투 이후 마흐디 운동의 결과로 탄생한 마흐디 국가는 멸망하게 됩니다. 따라서 ㄴ 선지는 틀렸습니다.  
이탈리아 왕국의 교황령 병합은 1871년의 일이지만, 이는 프로이센과 오스트리아 간의 전쟁(보오전쟁, 1866)이 아닌 프로이센과 프랑스 간의 전쟁(보불전쟁, 1871)을 틈탄 것입니다. 프로이센과 오스트리아 간의 전쟁에 참전한 대가로 얻은 것은 베네치아입니다. 따라서 ㄷ 선지는 틀렸습니다.  
프로이센왕의 독일 황제 대관은 1871년의 일입니다. 이후 독일 제국은 프랑스를 지원해 파리 코뮌을 진압하고 프랑스 제3공화국의 성립에 일조합니다. 따라서 ㄹ 선지는 옳습니다.

옳은 선지는 1개입니다.

6번 – 정답: 1번

(가)연설은 유럽에서 전쟁이 종결되었음을 알리는 처칠의 라디오 연설입니다. 독일이 어제 항복하였다는 것을 통해, 1945년 5월에 이뤄진 연설임을 알 수 있습니다. (나)선지는 이승만 대통령의 연설입니다. 한국전쟁(1950-1953)은 북한군의 남침(6.25사변)을 통해 발발하였으며, 6.25사변이 발발한 지 3주년이 되었다는 것으로 보아 1953년에 이뤄진 연설임을 알 수 있습니다.

소련은 1945년 7월 포츠담 선언을 통해 대일전 참전 의사를 명확히 했습니다. (선전포고는 1945년 8월) 따라서 1945년 5월 이전 시점에 소련이 일본에 선전포고한 소식을 들을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ㄱ선지는 틀렸습니다.  
무솔리니 정권은 1943년에 이미 붕괴하였습니다. 따라서 1945년에 무솔리니의 몰락을 기대하는 이탈리아인은 존재할 수 없고, ㄴ선지는 틀렸습니다.  
2차대전 이후 일본이 주권을 잃은 것은 사실이나, 1951년 샌프란시스코 강화 회의를 통해 미군정은 종식되고 일본은 주권을 회복했습니다. 따라서 1953년 시점에 일본인이 미군정에 불만을 가질 일은 없고, ㄷ선지는 틀렸습니다.  
저우언라이는 1954년에 델리에서 평화 5원칙을 발표했습니다. 따라서 1953년에 저우언라이의 평화 5원칙을 들은 사람은 존재할 수 없고, ㄹ선지는 틀렸습니다.

옳은 선지는 없습니다.

7번 – 정답: 4번

(가)민족은 훈족입니다. 훈족의 이동은 연쇄적으로 (나)민족인 게르만족의 로마 영내 침입을 불러일으켰으며, 이는 서로마 제국의 멸망과 중세 유럽 사회의 성립에 영향을 끼쳤습니다. 한편 중세 유럽 사회는 (다)민족인 튀르크족이 세운 셀주크 튀르크와 지속적으로 대립하였으며, 이는 십자군 전쟁으로 표출되었습니다. 셀주크 튀르크는 이후 (라)민족인 몽골에게 멸망하였습니다.

남면관제, 북면관제는 거란족에 의해 실시되었습니다. 거란의 다른 명칭은 키타이이며, 훈족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따라서 (가)선지는 틀렸습니다.  
게르만족은 제국주의 시대에 오스트리아-헝가리와 독일 제국을 중심으로 범게르만주의를 내세워 세르비아와 러시아로 대표되는 범슬라브주의와 대립하였고, 이는 제 1차 세계 대전의 한 원인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나)선지는 옳습니다.  
튀르크족의 한자식 명칭은 돌궐입니다. 돌궐은 당나라 시대에 묵철가한을 중심으로 돌궐 제2제국을 세워 당나라와 대립하였습니다. 따라서 (다)선지는 옳습니다.  
몽골 제국은 천호제를 실시하였습니다. 따라서 (라)선지는 옳습니다.

옳은 선지는 3개입니다.

8번 – 정답:

+참고: 이 부분의 역사에 대해서는 논쟁이 있습니다. 문제의 내용은 교과서 및 수능특강을 기준으로 합니다.

(가)는 신바빌로니아입니다. 신바빌로니아는 유대를 멸망시키고 유대 인들을 바빌론으로 이주시키는데, 이후 바빌론 유수 시대가 전개되며, 이는 아비뇽 유수라는 단어의 어원이 됩니다. 파라오가 통치하는 (나)는 이집트임을 알 수 있으며, 솔로몬왕 사후 이스라엘과 분열한 (다)는 유대입니다.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라)는 아시리아입니다. 한편, 트로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오리엔트를 그리스에 전파한 청동기 문명은 미케네 문명이며, 미케네 문명을 멸망시킨 (바)민족은 도리스인입니다.(참고: 미케네 문명의 멸망 원인이 도리스인이 아니라는 설도 있습니다.)

아시리아는 수도 니네베에 도서관을 건립했습니다. 따라서 ㄱ 선지는 옳습니다.  
이집트는 피라미드와 스핑크스를 건립했습니다. 그러나 크노소스 궁전은 미케네 문명이 아닌 크레타 문명의 유적입니다. 따라서 ㄴ 선지는 틀렸습니다.  
조로아스터교는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 시기에 등장하였습니다. 따라서 시기적으로 봤을 때, 신바빌로니아와 유대 모두에서 조로아스터교 신자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도리스인은 스파르타 등의 도시 국가를 세웠습니다. 이들은 정복 과정에서 자신들에게 협력한 자는 페리오이코이, 적극적으로 저항한 자는 헤일로타이로 삼았으며, 페리오이코이에게는 상공업을 맡기고 헤일로타이는 예속 농민으로 부렸습니다. 한편, 전통적인 인도의 카스트는 브라만 – 크샤트리아 – 바이샤 – 수드라로 나뉘는데, 이중 제2계급인 크샤트리아는 무사 계층으로, 주로 상공업을 담당한 페리오이코이와는 그 담당 분야가 다릅니다. (참고: 페리오이코이도 일부 군역을 담당하긴 했습니다.)